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세미나

2018. 10. 24.(수) 14:00 ~ 17:00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 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세미나

2018년 10월 24일(수) 14:00 ~ 17:00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 홀

□ 세부 일정

13:30~14:10	등 록 참석자 소개 및 인사	
14:10~14:25(15분)	주제발표1	**연구개요 및 독일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진로·직업교육 사례** **정윤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4:25~14:40(15분)	주제발표2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지능정보사회 인식 및 진로교육 현황·요구 분석** **김나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14:40~14:55(15분)	주제발표3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나현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4:55~15:05(10분)	휴식	
	좌장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15:10~15:25(15분)	지정토론1	**정종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
15:25~15:40(15분)	지정토론2	**김동수**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
15:40~15:55(15분)	지정토론3	**권영훈**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교장
15:55~16:10(15분)	지정토론4	**이용표** 수원공업고등학교 특성화부장
16:10~16:25(15분)	지정토론5	**은혜정**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16:25~16:55	종합토론	
16:55~17:00	폐회	

Contents

▌연구개요 및 독일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진로·직업교육 사례 …… 1
정윤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지능정보사회 인식 및 진로교육 현황·요구 분석 …… 17
김나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 35
나현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1. 정종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 …… 47
2. 김동수 /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 …… 49
3. 권영훈 /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교장 …… 51
4. 이용표 / 수원공업고등학교 특성화부장 …… 55
5. 은혜정 /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 59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세미나

연구개요 및 독일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진로·직업교육 사례

정윤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연구 개요 및 독일 사례

2018. 10. 24

목차

Ⅰ 연구 소개

Ⅱ 독일 직업계고 진로교육 체제 사례

Ⅰ. 연구 소개

01 연구 개요

연구 제목

-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 진로교육체제 개선 방안

연구 기간

- 2018. 01. 01 – 2018. 10. 31

연구진

- 정윤경, 나현미, 김나라

연구목적

-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교육 체제의 현황,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

01 연구 개요

용어의 정의

- **지능정보사회**
  -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 수집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의미함.
  - 지능정보사회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가격 저하 이용자 및 이용 분야확대 관련 기술과 프로그램의 오픈 소스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수정(개선) 용이 등에 따라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진로교육체제**
  - 진로교육체제란 **국가, 지역사회 및 학교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기 위한 진로교육 환경 여건과 진로교육 운영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표 1> 중학교 과정인 레알슐레(BBRW)의 진로교육 항목

학교 진로교육 체제	
영역 구분	세부 내용
진로교육 환경 여건	진로교육 계획, 예산, 부서, 공간,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학교 내외 네트워크 업무 사항 등
진로교육 운영 내용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선택교과 '진로와 직업' 채택,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시수,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실시 등

0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지능정보사회와 특성화고 진로교육체제 분석
- 지능정보사회 중등직업교육 방향
- 특성화고 및 학생 진로 현황
-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및 특징

문헌연구
-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 정부 정책 자료

전문가협의회

국내외 직업계고 진로교육 체제 사례 분석
- 국내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분석
- 독일 직업계고 진로교육 체제 분석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자료

해외출장(독일) 및 방문면담

지능정보사회와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분석
-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문제점 및 요구

설문조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84개교 교원 및 학생

심층그룹인터뷰
- 특성화고 진로교사, 취업지원관, 학생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방안
-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향
-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전문가협의회
- 특성화고 교원
- 진로·직업교육 전문가(학계, 정책입안자)

세미나

Ⅱ. 독일 직업계고 진로교육 체제 사례

01 독일의 지능정보화 정책과 직업교육

독일의 디지털 전략

- 'Digital Stategy 2025'는 최근의 기술변화 가속화, 데이터 트래픽 급속 확대, 연결성 확대 등의 혜택을 독일 전체*에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10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2025년까지 추진방안을 제시함.

* 인프라, 규제, 비즈니스 확대, 제조기업 등 주력 강점 산업의 디지털화, 오프라인 기반의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책, 관련 산업 역량 확보, 교육 및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 강화, 거버넌스, Work 4.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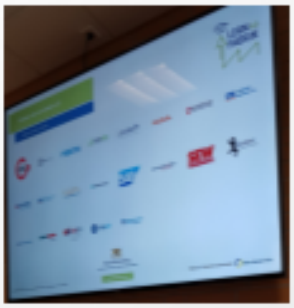
★ 중등 직업교육훈련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과제

01 독일의 지능정보화 정책과 직업교육

바덴 뷔 르템 베르크 주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중등 직업교육 지원

● 지역 네트워크 거점 기관 육성을 통한 Industry 4.0 직업교육 지원

- 바덴 뷔 르템 베르크 주 정부에서는 비슬로(Wiesloch) 지역의 **5개 거점 기업들(물류, 캐드, CNC, IT보안,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로봇, 기술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직업학교들에 지능정보화 기술과 직업교육을 전수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1] Industry 4.0 직업교육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거점 기관: 라인 넥카 서클 개념(Rhein Neckar Kre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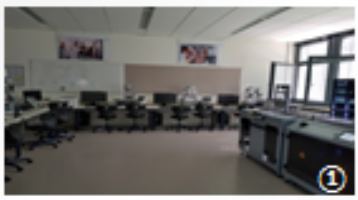
[그림 2] 휴버트 스턴 슐레(HSSW)의 학습 4.0과 연계된 기업(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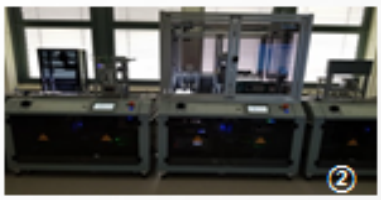
- 직업학교 휴버트 스턴 슐레(HSSW)는 [그림 1]과 같이 **5개 지역 네트워크 거점 기관(기업) 이외에도 Industry 4.0 직업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FESTO, SAP, SEW 등 **여러 기업의 공장들과 연계함**([그림 2] 참조).

01 독일의 지능정보화 정책과 직업교육

직업학교의 Industry 4.0 직업교육 교실 환경 구축

- 이 교실에는 자동화 기계의 생산과정 설비(②③), 학생들의 자동화 프로그래밍(코딩)을 위한 컴퓨터와 책걸상(①), 자동화 프로그래밍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③), 자동화 공정과 프로그래밍의 세세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스마트전자칠판(⑤), 교실 내 로봇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교수학습 콘텐츠(⑥) 등이 한 공간에 갖춰져 있음.
- 이러한 교실에서 학습공장 4.0(Lernfabrik 4.0), '기본 연구소', '애플리케이션 실험실', 'Smart Factory' 등의 기능과 수업이 이뤄지고 있음.





[그림 3] 휴버트 스턴 슐레(HSSW)의 Industry 4.0 직업교육 교실 환경

01 독일의 지능정보화 정책과 직업교육

직업학교의 Industry 4.0 직업교육 교실 환경 구축(계속)

- 알렌(Aalen) 지역에 위치한 직업학교 테크니크 슐레 알렌(TSA)은 2016년부터 Industry 4.0 직업교육을 위한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해당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그림 4 참조).
- 즉, 독일에서도 지능정보화에 따른 직업교육은 최근 1~2년 사이에 도입되어 확산되는 과정에 있음.

[그림4] 테크니크 슐레 알렌(TSA)의 Industry 4.0 직업교육 교실 환경

01 독일의 지능정보화 정책과 직업교육

직업학교 교사의 지능정보화 직업교육 역량 개발

- 독일은 Industry 4.0 직업교육 관련 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교사들을 대상으로 담당 교사 지원을 받아 연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재직 학교나 다른 학교의 교사들에게 전달(공유)하고 있음.
- 독일은 중등학교 교사가 보통 2~3개 교과목을 주당 27시간 내외에서 가르치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야할 때 기존 교사들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 연수 등 교수역량 개발 기회를 주고 새로운 교과 수업을 담당케 함으로써 새로운 인력 수급의 제약을 크게 겪지 않음.
- 독일은 주 정부의 지원에 따라 직업학교에 지능정보화 직업교육을 위한 교실 환경 구축에 참여한 기업들, 즉 자동화 기계 설비와 로봇 등 기자재를 제공한 업체들이 일차적으로 해당 직업학교의 담당 교사들에게 자동화 설비와 기자재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는 연수(교육)를 제공하고 직업학교 교사들이 지능정보화와 직업교육을 접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5] 직업학교(TSA)의 타 학교 교사 대상 Industry 4.0 직업교육 연수

- 독일 교육의 강점은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교사 인력 수급의 문제를 겪지 않고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내용을 연수받아 학교교육에 적용하고 다른 교사들에게 원활한 전달연수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임.

01 독일의 지능정보화 정책과 직업교육

직업학교 Industry 4.0 직업교육 학습 영역

- 독일의 Industry 4.0의 기본 개념은 다음 [그림 6]과 같이 생산 로봇의 자동화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기술/시스템은 가치 사슬 통제, 가상화, MES/ERP, 인터넷 보안, 인공 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똑똑한 공장, 빅 데이터, 섬유 네트워킹, 사물 인터넷 등이 포함됨.

[그림6] 직업학교(TSSW)의 Industry 4.0 개념도

KRIVET

13

Ⅱ. 독일 직업계고 진로교육 체제사례

01 독일의 지능정보화 정책과 직업교육

직업학교 Industry 4.0 직업교육 학습 영역(계속)

<표 2> 독일 직업학교 Industry 4.0 직업교육 학습 영역

구분		Industry 4.0 주요 교육내용		핵심 역량
직업학교	장치용 전자 기술자 시스템 (Elektroniker fur Gerate u. Systeme)	• 로봇 공동 제조 (Roboter-kollaborierende Fertigung) • 자동화 기술(Automatisierungstechnik)	• 센서/전자 제품(Sensorik / Elektronik) • 제어 기술(steuerungstechnik) • 에너지 관리(Energiemanagement)	팀워크 장외성 학제 간 사고 네트워크 사고 유연성 즐거운 혁신
	IT 전문가 (Fachinformatiker)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어댑터 (Software-Schnittstellenanpassung) • 전송 기술(Übertragungstechnik) • 클라우드 컴퓨팅(Cloudcomputing)	• 네트워킹(Vernetzung) • IT 보안(IT-Security) • 빅 데이터(Big Data)	
	산업 기계공 (Industriemechaniker)	• 유지(wartung) • 설치(instandhaltung)	• 전공(elektropneumatik) • 로봇(robotik)	
기술 김나지움 (Technisches Gymnasium)		• 드라이브 기술(Antriebstechnik) • 로봇(Robotik) • 센서/전자 제품(Sensorik/Elektronik) • 자동화 기술(Automatisierungstechnik) • 제어 기술(Steuerungstechnik) • 에너지 관리(Energiemanagement) • 협업 작업(Kollaborierende Fertigung) • 명령형 코드(Imperativer Code)	• 클라우드 컴퓨팅(Cloudcomputing) • 네트워킹(Vernetzung) • IT 보안(데이터 보안) (IT-Security(Datensicherheit)) • 빅 데이터(Big Data) • 전송 기술(Übertragungstechnik) • 인공 지능(künstliche Intelligenz)	팀워크 장외성 네트워크 사고 유연성
2년 전문 학교 (2-jahriger Berufsfachschule)		• 센서(Sensorik) • 전자 공학(Elektronik)	• 제어 기술(Steuerungstechnik)	팀워크/ 개인적 책임 논리적 사고 배울 수 있는 의지

문헌: 직업학교 쥐버드 스텐 슐레(HSSW)의 Industry 4.0 관련 내부자료.

KRIVET

14

02 독일의 교육제도와 진로교육

독일의 교육제도

- 독일은 16개 주의 연방국가로서 주마다 고유한 전통과 문화, 교육제도가 있으나 14개 주에서 다음 [그림]와 같이 초등학교(공통교육 4년) 후에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위한 학습과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진로학습경로(과정)을 제공.

[그림] 독일의 학제

- **레알슐레(Realschule, 중학교)**는 학생들이 직업세계 또는 직업계 고등학교로 성공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킴.
- **김나지움(Gymnasium)**은 8년 동안 일반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지식, 가치, 역량을 강화하는 과목들을 배우고, **6-jähriges TG(기술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메카트로닉스(TGM), 디자인 및 미디어 기술(TGG), 정보기술(TGI), 기술 및 관리(TGTM), 환경기술(TGU), 응용과학(TGN) 등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도록 가르치고 광범위한 일반 교육을 제공함.

02 독일의 교육제도와 진로교육

독일의 교육제도

- 독일의 직업교육 체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직업학교를 중심으로 한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훈련(VET)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 수준의 전문교육훈련(PET)임.
- 독일의 직업학교의 일과 학습 단계를 살펴보면, 일반교육 학교 단계 이후에 듀얼 직업교육 시스템(Duale Ausbildung)을 거쳐 직업세계로 진출하거나 직업계 고등학교(Berufliche Gymnasien) 또는 전문학교(Berufskolleg)를 거쳐 연구를 위한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함.

[그림 8] 직업학교의 일과 학습 단계

- 독일의 직업교육 및 훈련은 파트 타임 형식의 비즈니스 스쿨과 직업세계의 수많은 항목에 대해 이뤄짐.
- 중등 직업교육의 연구기술(Studierfähigkeit) 분야로의 경로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① 직업 고등학교(Berufliches Gymnasium)를 거쳐 종합대학 입학자격(Allgemeine Hochschulreife)을 획득. ② 전문대학(Berufskolleg) 1년 또는 2년 후에 FHS 인증(reife)을 얻음. ③ 학사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부 및 대학원생의 50% 이상이 직업교육 시스템을 거친 학생들임. ④ 일반대학 학생의 거의 1/3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함.

02 독일의 교육제도와 진로교육

독일의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 체제의 특징

● 1) 산업체(Industry 4.0)과 연동된 현장 중심 직업교육(학습 4.0)을 실시

- 독일의 듀얼 직업교육훈련 체계는 학교의 이론 교육과 기업현장의 실무 훈련을 병행하면서 산업현장과 밀접한 직업교육을 예전부터 실시함.

[그림9] 독일의 듀얼 직업교육훈련 체계도

- 산업현장에 Industry 4.0 도입으로 생산 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최신 자동 생산 로봇 시스템을 직업학교와 도제훈련장(기업)에 도입하여 현장 중심 Industry 4.0 직업교육(학습 4.0)을 실시

02 독일의 교육제도와 진로교육

독일의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 체제의 특징

● 2) 교육단계별로 학업수행(과정)와 성취(졸업)를 엄격하게 관리

- 독일은 학교단계별 교육의 질과 졸업 및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특징임.
- 학교단계별 입학 경쟁이 있기는 하지만 입학보다도 입학 후 학업 수행과 성취(졸업 시험)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졸업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음.
- 학생의 학업 역량에 다르고 진로경로를 전환하기도 하므로 직업학교에서 동일한 학년 일지라도 여러 연령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임.
- 즉 독일은 교육단계별로 학업수행(과정)과 성취(졸업)이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자신의 적성과 학업 역량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진로경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진로의사결정임.

02 독일의 교육제도와 진로교육

독일의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 체제의 특징

● 3) 교육제도 및 단위학교 내에 여러 진로·학습경로와 후학습 과정이 존재하여 학생의 진로선택이 다양

- 다음 [그림 10]은 직업학교(TSA) 1개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공업/가사·실업 전공)과 진로경로(취업, 진학)를 나타냄.
- 독일은 **학교급별, 학교단계별로 다양한 학습과정**(학생에게 맞는 다양한 학습과정)과 **진학 경로**(상위 교육기관 진출 기회)가 존재함으로써 **학생들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진로선택**(학습, 직업 준비)과 준비가 가능한 특징이 있음.
- 또한 중등직업교육 후에도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기술대학, 전문가로 인정받는 마이스터과정 등 직업교육의 후학습 체계가 정립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음.

[그림10] 직업학교(TSA)의 직업교육 체계

02 독일의 교육제도와 진로교육

독일의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 체제의 특징

● 4) 중등직업교육 전단계의 선수 학습과 진로탐색이 구체적이어서 중등직업교육과정에서 진로미결정이나 변경이 많지 않음

- 독일은 초등학교(4년) 이후 중등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주로 레알슐레(중학교 과정의 실업교육)에 진학하며 하츠슐레(중등학교)에 진학함. **중학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위한 선수 학습을 배우며 다양한 직업탐색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직업교육훈련 전공분야와 기관(기업체, 직업학교)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편임. 중등 직업교육 단계(도제훈련 기업, 직업계 고교)에서도 기관이나 전공과를 변경(4개월 이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변경하지 않음.**
- 독일은 **개인의 적성(학업 역량 포함)과 교육(전공, 학력) 간의 불일치도 낮은 편이고, 교육(전공, 학력)과 일자리(직업, 임금 등) 간의 미스매치 비율도 낮은 편임.**
- 독일은 사회적으로 산업을 구성하는 직업들에 준비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학력은 직업학교(고교 수준), 기술대학, 일반대학 등으로 인식함. 즉, 김나지움(일반계고)는 대학 예비 단계로서 **김나지움 졸업 학력만으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하지 않아 전문 직무와 직책을 맡기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독일에서는 대학교육과 졸업이 엄격하므로 기술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직업학교에 다시 와서 배우고 졸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

02 독일의 교육제도와 진로교육

진로교육 사례 – 독일 중학교 과정의 진로교육 사례

<표 3> 독일 직업학교 Industry 4.0 직업교육 학습 영역

학년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6~7학년	직업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예시) 여성 직업을 남학생이 체험하고, 남성 직업을 여학생이 체험하기	연간 1일
8학년	자기이해 및 직업정보 탐색	▪ 직업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관심 직업분야 찾아보고 기록하기 ▪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 등 검사하고 관련 직업정보 탐색	매주 1시간
	Accessment Center	▪ 현장실습 전에 학생 어떤 직업(기업)을 선정할지 논의하는 상담 프로그램 ▪ 부모, 학생(만14세), 선생님 함께 참여 ▪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정하여 자립심 키우도록 지도함	1회
	현장실습	▪ 의무적인 필수 과정 ▪ 어떤 직업과 기업에 갈지는 학생이 스스로 결정함	3일간
9학년	자기 이력서 작성 및 활용	▪ 교육과정 중에 실시 ▪ 전체 직업정보를 듣고 체험할 기업(향후 도제교육을 ~~)하기 위한 이력서 작성 ▪ 이력서와 성적증명서를 기업 체험할 기업들에 보내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을 배움 ▪ 이 과정에서 부모와 의논하고, 교사는 학생의 일정 관리지도	매주 1시간
	기업 체험	▪ 관심 직업기업 2개 이상에 1주일씩 체험 ▪ 체험 시 임금 처우 및 만족 여부 등 정보 얻음	2주간
	도제훈련 분야 탐방	▪ 현장에 나가서 도제훈련생이나 졸업생을 만나 여러 도제훈련 분야에 대해 듣기 ▪ 선택 사항으로 관심 분야인 경우 나감	
	기업 방문	▪ 학교 주변 기업 3곳 방문 ▪ 조형(조형 건업) 마트 창고(창고업) 인쇄소(인쇄기계, 인쇄업) ▪ 학생은 도제훈련분야 탐방 기회, 기업은 도제훈련생 모집 기회임	
10학년	직업학교 탐방	▪ 인근 직업학교(직업계고) 방문하여 교육, 실습 장비 등 관찰 ▪ 직업학교 가기 위해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지 수학 등 학습 동기 부여 받음	

KRIVET 레알슐레(BBRW) 교감 선생님(Andreas Herbold) 인터뷰(2018.6.18.) 결과

Ⅱ. 독일 직업계고 진로교육 체제사례

02 독일의 교육제도와 진로교육

진로교육 사례 – 독일 중학교 과정의 진로교육 사례

- 레알슐레(BBRW)는 김나지움과 달리 실기 위주의 교육을 강조함. 실기 위주 교육은 크게 3개 분야 - ① 영어를 기본으로 배우고 외국어(불어 등) 1개를 더 배움 ② 직업 관련 기술(technique)을 매주 3시간씩 배움 ③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상식이지만 전문 내용을 배움 – 등이 있는데 학생들은 각자 한분야를 선택해 배움.
- 중학교 과정인 레알슐레(BBRW)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자립심을 키우는데 목표가 있어 학생 주도의 체험실습 중심의 진로탐색 활동을 실시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등 직업교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진로활동을 실시함. 즉 **상급학교(도제교육 기업이나 직업학교)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교육은 5학년부터 컴퓨터 수업이 있고, 7학년부터 프로그래밍(CNC IT) 수업이 있는데 8학년 때 다른 전공(직업) 희망 시 컴퓨터 수업이나 프로그래밍 수업을 거부할 수 있음.
- 체험을 제공하는 기업은 안전수칙(안전복 착용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교사는 학생 체험에 동행하지는 않으나 하루 정도 관찰(살펴)하러 기업을 방문하고 학생의 기업 체험 만족 정도가 어떠한지 대화와 보고 자료를 통해 점검함.

KRIVET

02 독일의 교육제도와 진로교육

진로교육 사례 – 독일 중학교 과정의 진로교육 사례

- 직업학교(Hubert-Stemberg-Schule Wesloch : HSSW)는 듀얼 직업교육으로서 **실기교육은 수공예, 산업 및 무역회사 등 기업에서 진행되고 학교에서는 적절한 이론 지식을 가르치고 일반교육을 심화시킴.** 직업교육 분야는 제조기술, 금속 건설 기술(Metallbautechnik), 차량기술, 바디케어, 전기공학, 컴퓨터과학 등임.
- 학습 40 수업은 ① 직업 기술 고등학교 및 장치 및 시스템 전자 기술자 : 로봇 공동 제작, 자동화기술 센터/전자 제품, 제어 기술, 에너지 관리, ② IT 전문가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의 전공 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킹, IT 보안, 빅데이터, ③ 산업기계공 : 유지, 조립기술 드라이브 기술, 전기공압, 로봇 등에 대해 가르치고 있음.
- 사전 자격 인증 업무와 직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VAB: Vorqualifizierung Arbeit/Beruf)과 BEI를 통해 진로교육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VAB와 BEI은 이론, 전문 연습, 인턴십(1주일에 1일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표 4> 주립 직업학교 Industry 4.0 직업교육 학습 영역

대상	교육 내용	교육 목표
중등학교 중업 없는 청소년	금속, 차량, 전기 공학, 개인 위생,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안내	중등학교(Hauptschulabschluss) 직업 오리엔테이션 외국 직업 학교 경험
중등학교 중업장 소지 청소년	금속 가공, 차량 공학, 전기 공학, 개인 위생 및 데이터 처리 분야의 광범위한 직업 기술 지식 제공	직업 오리엔테이션 폭넓 섭속도 향상

출처: 직업학교 Hubert-Stemberg-Schule 교장선생님(Jeurgen Becker) 설명자료, p.9.

02 독일의 교육제도와 진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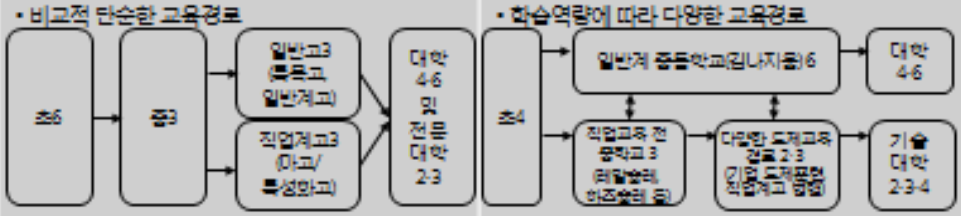
진로교육 사례 – 독일 도제훈련 기업의 진로교육 사례

- 도제훈련생 선발 과정은 온라인으로 지원자 300명의 서류심사 과정(도제교사 담당)을 거쳐 50명을 선발하고 수학능력과 면접(도제훈련 관계자)을 거쳐 훈련생(30명)을 선발함. 도제교사는 훈련생들의 역량(지식, 기술 등)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평가함. 도제훈련생 선발은 도제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담당하고 마팔사 인사팀은 도제교사의 서류심사와 면접 결과를 받아 도제훈련 계약 등 채용 절차를 밟는 역할을 함.
- 보통 도제훈련생 선발 과정은 7월말부터 지원서가 온라인으로 접수되어 9월 중순까지 받는데, 몇 회 기간을 나누어 서류심사와 학생 일대일 면접(보통 20분)을 거쳐 도제훈련생을 선발함.
- 도제교사는 훈련생 선발과 직업훈련을 직접 가르치며 훈련생이 개인적 내부적으로 문제 있을 때 상담해주고 성적(직업학교 성적)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함. 또한 훈련생 30명 중 반장을 뽑아 개별 학생문제(부끄럼, 소심 등)을 중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11] 1주일간의 마팔사 도제훈련 체험 시 제작한 모형

03 한국과 독일의 사회·교육제도 특징 비교

<표 5> 한국과 독일의 사회·교육제도 특징

구분	한국	독일
사회-경제 특징	• 기업 및 일자리 변동, 업종/업체 규모간 임금격차 큰 편 •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 취업(입직) 경쟁 높음. • 적성-전공-일자리 간 미스매치 낮지 않음 • 입학(입직) 중심 교육(고용)	• 산업 및 직업 구조 안정적, 업종/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 크지 않음. • 일자리 취업(입직) 경쟁 심하지 않음. • 적성-전공-일자리 간 매칭 높은 편임. • 졸업(근로) 중심 교육(고용)
지능정보사회 특징	• 지능정보/4차 산업혁명 회제 • 핵심 분야 인재 양성 추진 • 코딩 교육 추진 • 마고(일부)는 산업변동 연계 스마트 직업교육 실시	• 제조업 등 산업 Industry 4.0(Smart factory 4.0) 선도 및 확산 • 산업변동과 연동된 직업교육(도제) • 최근 지능정보 교실 장비 구축 및 교육과정/전공 내 수업(과목) 실시
교육제도	• 비교적 단순한 교육경로 	• 학습역량에 따라 다양한 교육경로

04 한국과 독일의 진로교육 특징 비교

<표 6> 한국과 독일의 진로교육 특징

구분	한국	독일
진로교육 목표	• 긍정적 진로정체감 형성 및 진로개발역량 함양 • 잠정적 진로탐색과 선택 지향	• 진로 자립심 형성 • 구체적 진로탐색과 선택 지향
진로결정시기	• 열린 잠정적 진로선택 권고 • 중3, 고3, 대학 졸업 시	• 조기 진로선택(판단) 권고 • 초4 졸업 시, 직업교육 예비 중학교 과정 졸업 시
진로탐색시기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마다 진로탐색과 진로선택 (진학/취업) • 입시(입직) 준비 위주	• 직업교육 예비 중학교에서 진로탐색 집중 (도제교육 기관/전공 선택) • 일반교육 고교(김나지움)에서 진로탐색 집중 (대학/전공 선택)
진로교육 환경 여건	• 진로교육 계획, 예산, 부서 있음 • 진로전담교사 1교 1명 있음 • 학교 내외 네트워크 미흡	• 직업교육 계획, 예산, 부서 있음 • 전담교사는 아니나 진로교육 담당 교사 및 지원/협력 교사들 있음 • 도제교육 듀얼시스템으로 진로교육(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업종 체험 등) 네트워크 있음
진로교육 운영 내용	• 초중고 창체 진로활동, 중등 선택교과 「진로와 직업」 • 진로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실시	• 초졸 시 직업준비교육/대학준비교육 선택 • 중학교 과정에서 자기이해, 직업정보탐색 현장실습/기업체험, 이력서 작성 도제훈련기관(학교,기업) 탐방 실시

05 시사점

1. 독일은 초등교육 직후 두 가지 진로(대학 교육 목적/중등 직업교육 목적)로 구분
중학교 단계에서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탐색과 체험 위주의 실질적인 진로교육 실시함.

2. 독일은 듀얼 직업교육(기업의 도제훈련+직업학교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지능정보사회(Industry 4.0, Smart factory 4.0)에 따른 산업현장의 자동화(기계화) 생산 시스템이
기업 도제훈련장과 직업학교 현장에 도입되어 관련 수업을 실시함.

3. 독일은 중학교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자립심 함양을 목표로 하여, 학생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전공학과에 대한 진로탐색과 체험을 구체적으로 실시함.
따라서 고교 단계의 듀얼직업교육 과정에서 진로(직업학교 도제훈련 기업 전공학과)를 잘 변경하지
않고, 전공분야로의 취업률이 매우 높음.

4. 독일은 직업학교에서 여러 계열의 전공과가 있어 진로 변경이 많지 않지만
학생의 적성과 학습 역량에 따라 전공 변경이 가능하고, 중등 직업교육 이후 전공과
연계하여 심화된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술대학이 마련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특성화고 학생이 적성과 학습 역량이 맞지 않아도 전공 변경이 어려운 편임.
또한 전공분야로의 대학 진학 기회가 열려 있으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위한
고등교육단계의 심화된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보다는 일반계고 졸업생도 진학하는 대학들임.

KRIVET

27

THANK YOU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세미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지능정보사회 인식 및 진로교육 현황·요구 분석

김나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지능정보사회 인식 및 진로교육 현황·요구 분석

김 나 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목차

Ⅰ. 설문조사 개요

Ⅱ. 분석 결과

Ⅲ. 시사점

Ⅰ.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관리자, 진로전담교사, 취업부 교사 및 3학년 학생

조사방법

▪우편조사

조사기간

▪2018년 6월 1일 ~ 6월 22일 (3주간)

조사내용

▪지능정보사회와 직업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 학교 진로교육 체제 현황, 학생의 입학과정 및 진로계획준비 등

응답자 현황

<표 1>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학교관리자		진로전담교사		취업부교사		학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83	100	183	100.0	183	100	3,380	100
학교유형	마이스터고	43	23.5	42	23.0	43	23.5	773	22.9
	특성화고	140	76.5	141	77.0	140	76.5	2,607	77.1
계열	가사/실업	8	4.4	8	4.4	8	4.4	151	4.5
	공업	100	54.6	99	54.1	99	54.1	1,825	54.0
	농생업	10	5.5	10	5.5	10	5.5	181	5.4
	상업/정보	60	32.8	61	33.3	61	33.3	1,127	33.3
	수산/해운	5	2.7	5	2.7	5	2.7	96	2.8

Ⅱ. 분석 결과

1 지능정보사회와 중등 직업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아는 정도

- 마이스터고 교원과 학생이 특성화고 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관리자가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으로 진로전담교사, 취업부교사, 학생 순으로 나타남.

<표 2> 이해 지능정보사회 아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전혀 알지 못함	알지 못함	보통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합계	평균 (5점 만점)
전체		3,894	4.8	19.7	40.9	26.1	8.5	100.0	3.14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898	2.3	11.9	36.2	37.9	11.7	100.0	3.45
	특성화고	2,996	5.5	22.1	42.3	22.6	7.5	100.0	3.05
유의도		Pearson chi²(4) = 132.1249***							

[그림 1]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아는 정도(5점 만점)

1 지능정보사회와 중등 직업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직업교육의 변화 인식

- 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생애 관점의 진로교육이 더 강화되어야할 것이다에 가장 높은 동의 의견 보임.
- 그 다음으로 직업세계가 변하므로 계속적으로 학습해야 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는 직업과 일자리 변화가 클 것이다 '등에 높은 동의 의견을 보임.
-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학위가 더 필요할 것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할 취업처가 줄어들 것이다' 등에 동의하는 의견은 높지 않음.

[그림 2]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직업교육 변화 인식(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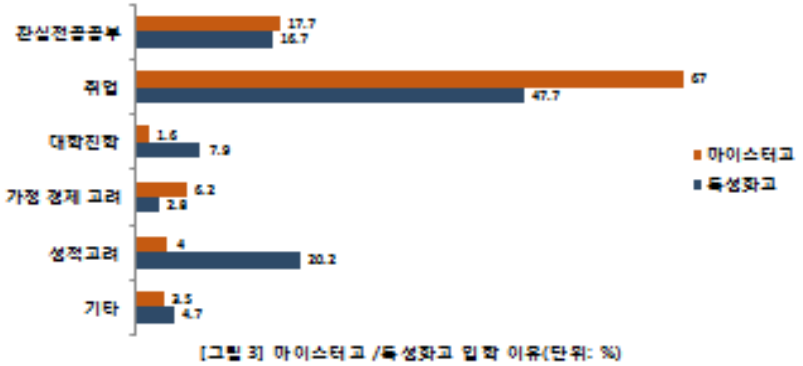
2 학생의 입학 이유, 진로계획 및 준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입학 이유

- 취업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많았음.

<표 3>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입학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관심전공 공부	취업	대학진학	가정 경제 고려	성적고려	기타	합계
전체		3,370	17.0	52.1	6.4	3.6	16.5	4.4	100.0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772	17.7	67.0	1.6	6.2	4.0	3.5	100.0
	특성화고	2,598	16.7	47.7	7.9	2.8	20.2	4.7	100.0
유의도		Pearson chi²(5) = 195.0002***							



[그림 3]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입학 이유(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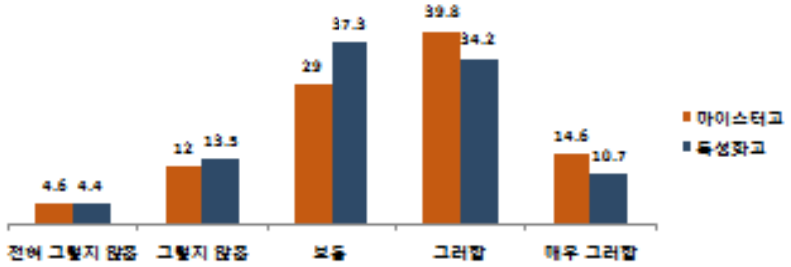
2 학생의 입학 이유, 진로계획 및 준비

학교 정보 알고 입학한 정도 및 정보 원천

- 학교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입학한 정도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정보 원천이 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홍보(교사, 선배, 팜플렛 등)로 나타남.

<표 4> 학교 정보등 점문이 알고 입학한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합계
전체		3,353	4.4	13.1	35.4	35.5	11.6	100.0
유형	마이스터고	768	4.6	12.0	29.0	39.8	14.6	100.0
	특성화고	2,585	4.4	13.5	37.3	34.2	10.7	100.0
유의도		Pearson chi²(5) = 25.4602***						



[그림 4] 학교 정보등 점문이 알고 입학한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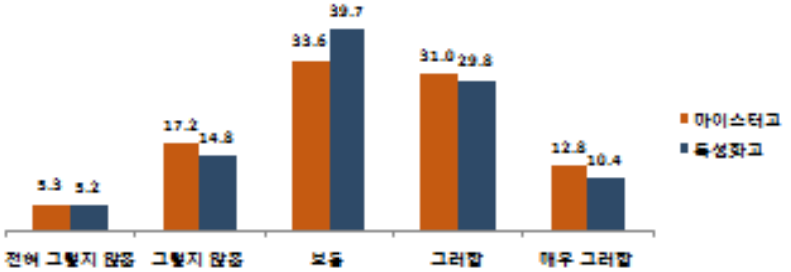
2 학생의 입학 이유, 진로계획 및 준비

학과 정보 알고 입학한 정도 및 정보 원천

- 학과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입학한 정도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과 정보 원천이 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홍보(교사, 선배, 팜플렛 등)로 나타남.

<표 5> 학과 정보등 점문이 알고 입학한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합계
전체		3,344	5.2	15.4	38.3	30.1	11.0	100.0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767	5.3	17.2	33.6	31.0	12.8	100.0
	특성화고	2,577	5.2	14.8	39.7	29.8	10.4	100.0
유의도		Pearson chi²(4) = 11.1029**						



[그림 5] 학과 정보등 점문이 알고 입학한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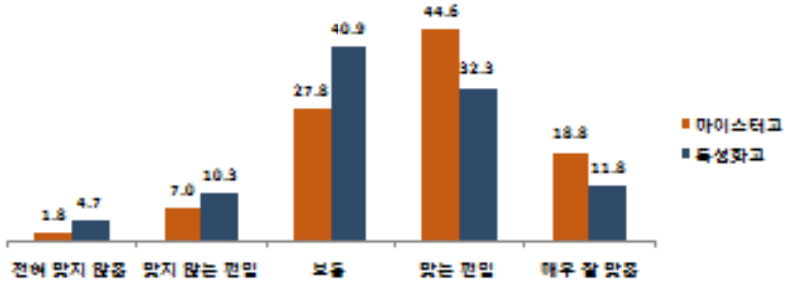
2 학생의 입학 이유, 진로계획 및 준비

학과(전공)과 학생의 흥미적성 적합도

▪ 학과(전공)과 자신의 흥미적성이 맞다는 학생의 비율은 마이스터고는 60%대로 어느 정도 높으나 특성화고는 절반 이하로 낮은 편임.

<표 6> 학과와 자신의 흥미적성 적합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전혀 맞지 않음	맞지 않는 편임	보통	맞는 편임	매우 잘 맞음	합계
전체		3,375	4.1	9.5	37.9	35.1	13.4	100.0
학교유형	마이스터고	772	1.8	7.0	27.8	44.6	18.8	100.0
	특성화고	2,603	4.7	10.3	40.9	32.3	11.8	100.0
유의도		Pearson chi²(4) = 90.6368***						



[그림 6] 학과와 자신의 흥미적성 적합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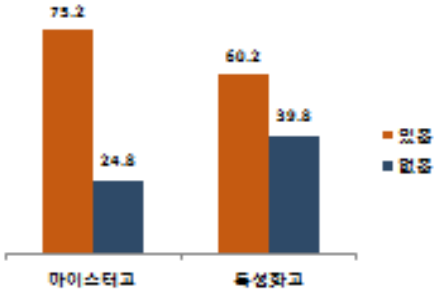
2 학생의 입학 이유, 진로계획 및 준비

희망 직업

▪ 희망 직업은 특성화고 학생 10명 중 6명, 마이스터고 학생 10명 중 7명 정도 있음.

<표 7> 희망 직업 유무 (단위: 명, %)

구분		빈도	있음	없음	합계
전체		3,353	63.6	36.4	100.0
학교유형	마이스터고	770	75.2	24.8	100.0
	특성화고	2,583	60.2	39.8	100.0
유의도		Pearson chi²(1) = 57.6310***			



[그림 7] 희망 직업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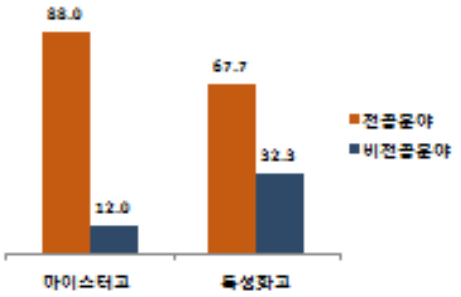
2 학생의 입학 이유, 진로계획 및 준비

전공 관련성

▪ 많은 학생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희망과 전공 관련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전공분야	비전공분야	합계
전체		2,102	73.3	26.7	100.0
학교유형	마이스터고	575	88.0	12.0	100.0
	특성화고	1,527	67.7	32.3	100.0
유의도		Pearson chi²(1) = 87.7516***			



[그림 8] 희망과 전공 관련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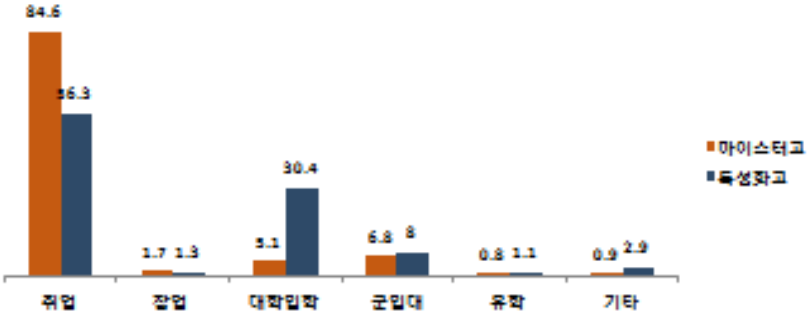
2 학생의 입학 이유, 진로계획 및 준비

졸업 후 진로계획

▪ 졸업 후 진로계획은 취업이 높음.

<표 9> 졸업 후 진로계획 (단위: 명, %)

구분		빈도	취업	잡업	대학입학	군입대	유학	기타	합계
전체		3,306	62.8	1.4	24.6	7.7	1.0	2.5	100.0
학교유형	마이스터고	762	84.6	1.7	5.1	6.8	0.8	0.9	100.0
	특성화고	2,544	56.3	1.3	30.4	8.0	1.1	2.9	100.0
유의도		Pearson chi²(5) = 238.3895***							



[그림 9] 졸업 후 진로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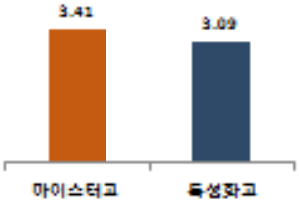
2 학생의 입학 이유, 진로계획 및 준비

졸업 후 진로계획 준비정도

- 진로준비 정도는 10명 중 3명은 잘 준비하나, 4~5명은 보통이며 2명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졸업 후 진로계획 준비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전혀 준비 못하고 있음	준비 못하고 있는 편임	보통임	준비 잘하고 있는 편임	매우 준비 잘하고 있음	합계	평균 (5점 만점)
전체		3,370	2.4	19.0	45.0	26.6	6.9	100.0	3.17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772	1.3	12.8	39.5	36.7	9.7	100.0	3.41
	특성화고	2,598	2.8	20.8	46.6	23.7	6.1	100.0	3.09
유의도		Pearson chi²(4) = 80.8046***							



[그림 10] 졸업 후 진로계획 준비 정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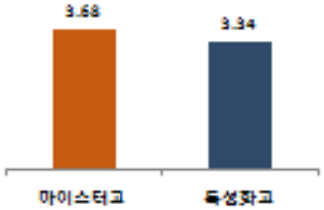
2 학생의 입학 이유, 진로계획 및 준비

학교의 진로 준비 지원 정도

- 학교가 진로 준비를 잘 지원해준다는 응답은 마이스터고 학생 10명 중 4~5명, 특성화고 학생 10명 중 3명 꼴로 전반적으로 마이스터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 보다 학교가 진로 준비 지원을 잘 해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11> 학교의 진로 준비 지원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음	도와주고 있지 않은 편임	보통임	도와주고 있는 편임	매우 잘 도와주고 있음	합계	평균 (5점 만점)
전체		3,367	4.3	10.2	39.3	31.6	14.5	100.0	3.42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772	2.3	6.9	31.9	38.3	20.6	100.0	3.68
	특성화고	2,595	4.9	11.3	41.5	29.6	12.7	100.0	3.34
유의도		Pearson chi²(4) = 74.2520***							



[그림 11] 학교의 진로 준비 지원 정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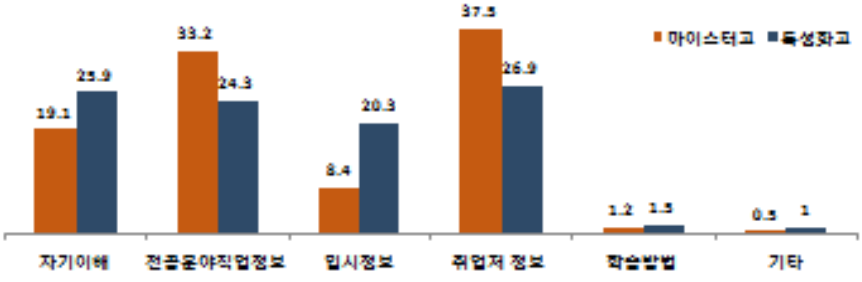
2 학생의 입학 이유, 진로계획 및 준비

진로상담 주제

- 진로상담 주제는 마이스터고 학생의 경우 취업처 정보와 전공분야직업정보가 높음.
- 반면에 특성화고 학생은 취업처 정보, 자기이해, 전공분야 직업정보, 입시정보 등이 비슷하게 나타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진로고민과 주제를 갖고 있고 진로미결정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됨.

<표 12> 진로상담 주제 (단위: 명, %)

구분		빈도	자기이해	전공분야 직업정보	입시정보	취업처 정보	학습방법	기타	합계
전체		3,378	24.3	26.4	17.6	29.3	1.5	0.9	100.0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773	19.1	33.2	8.4	37.5	1.2	0.5	100.0
	특성화고	2,605	25.9	24.3	20.3	26.9	1.5	1.0	100.0
유의도		Pearson chi²(5) = 102.2214***							



[그림 12] 진로상담 주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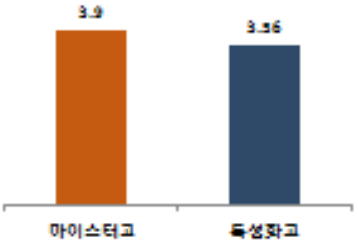
2 학생의 입학 이유, 진로계획 및 준비

학교의 진로상담 제공 정도

- 학교의 진로상담 제공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진로전담교사, 취업지원교사 등이 진로상담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13> 학교의 진로상담 제공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전혀 받을 수 없음	받을 수 없는 편임	보통임	받을 수 있는 편임	매우 잘 받을 수 있음	합계	평균 (5점 만점)
전체		3,367	1.5	6.5	36.4	37.9	17.7	100.0	3.64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772	0.9	4.9	24.5	42.9	26.8	100.0	3.90
	특성화고	2,595	1.7	6.9	40.0	36.4	15.0	100.0	3.56
유의도		Pearson chi²(4) = 99.6901***							



[그림 13] 학교의 진로상담 제공 정도(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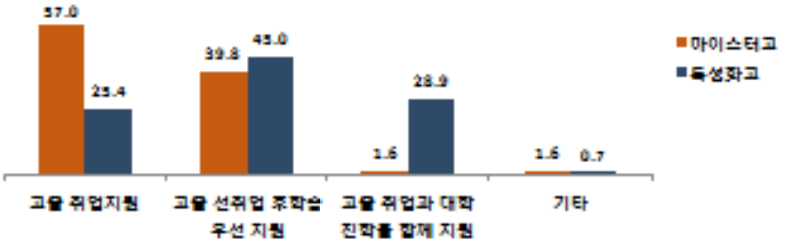
3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교육 체제

학교 진로교육 목표

- 학교의 진로교육 목표는 고졸 선취업 후학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졸 취업지원, 고졸 취업과 함께 대학 진학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 보다 고졸 선취업 후학습을 목표로 하는 진로교육을 더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14> 학교의 진로교육 목표 (단위: 명, %)

구분		빈도	고졸 취업지원	고졸 선취업 후학습 우선 지원	고졸 취업과 대학 진학을 함께 지원	기타	합계
전체		546	32.8	43.8	22.5	0.9	100.0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128	57.0	39.8	1.6	1.6	100.0
	특성화고	418	25.4	45.0	28.9	0.7	100.0
유의도		Pearson chi²(3) = 63.9691***					



[그림 14] 학교의 진로교육 목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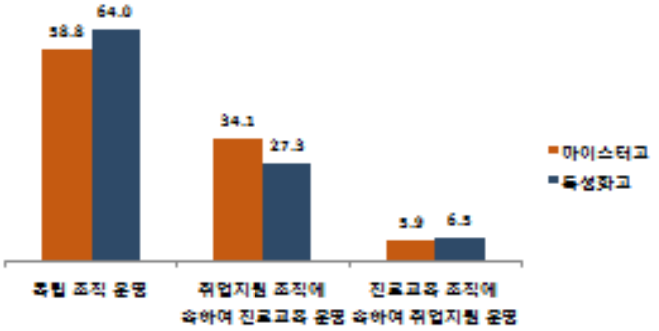
3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교육 체제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조직 운영 형태

- 취업지원 조직과 진로교육 조직이 주로 독립 조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많은 편임.

<표 15>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조직 운영 형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독립 조직 운영	취업지원 조직에 속하여 진로교육 운영	진로교육 조직에 속하여 취업지원 운영	기타	합계
전체		363	62.8	28.9	6.3	1.9	100.0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85	58.8	34.1	5.9	1.2	100.0
	특성화고	278	64.0	27.3	6.5	2.2	100.0
유의도		Pearson chi²(3) = 1.6766					



[그림 15]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조직 운영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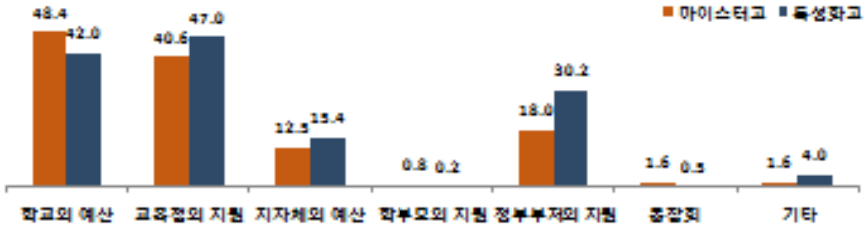
3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교육 체제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예산

-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예산은 주로 학교 예산과 시도교육청 예산 지원 많음.
- 정부 부처의 지원 예산 비중은 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 보다 높음.
- 진로교육은 학교 예산 비중이 많고, 취업지원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 비중이 많은 편으로 나타남.

<표 16>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예산 (단위: 명, %)

구분		빈도	학교의 예산	교육청의 지원	지자체의 예산	학부모의 지원	정부부처의 지원	총장회	기타	합계
전체		366	43.5	45.5	14.8	0.4	27.3	0.7	3.5	100.0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85	48.4	40.6	12.5	0.8	18.0	1.6	1.6	100.0
	특성화고	281	42.0	47.0	15.4	0.2	30.2	0.5	4.0	100.0
유의도		Pearson chi²(3) = 10.7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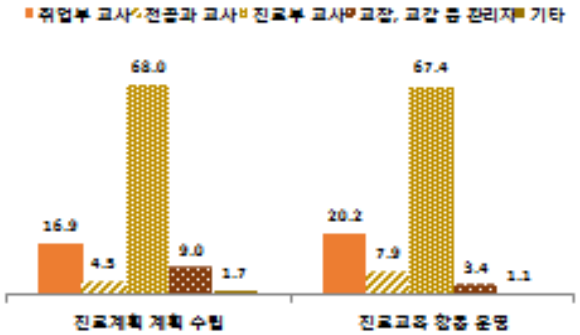


[그림 16]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예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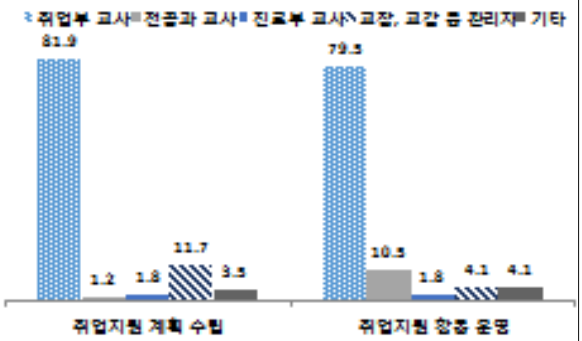
3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교육 체제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담당 인력

-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은 진로교육은 진로부 교사가 취업지원 활동은 취업부 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음.



[그림 17] 진로교육 담당 인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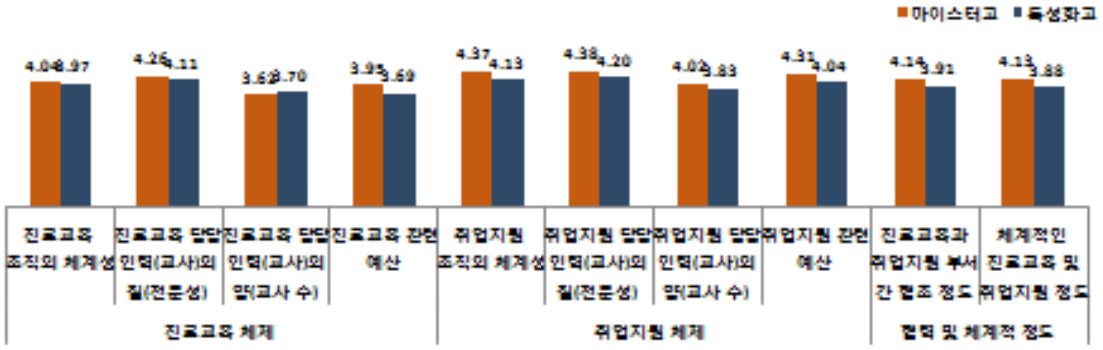


[그림 18] 취업지원 담당 인력 (단위: %)

3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교육 체제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체제 운영 정도

- 진로교육의 경우 조직 체계성과 인력의 전문성은 좋은 편이나 인력 수와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취업지원은 조직의 체계성, 인력의 전문성, 예산 등은 좋은 편이나 인력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진로교육과 취업지원 부서 간의 협력 정도는 어느 정도(5점 척도의 3.96)체계적으로(3.94)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 보다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체계의 운영이 더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9]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체제 운영 정도(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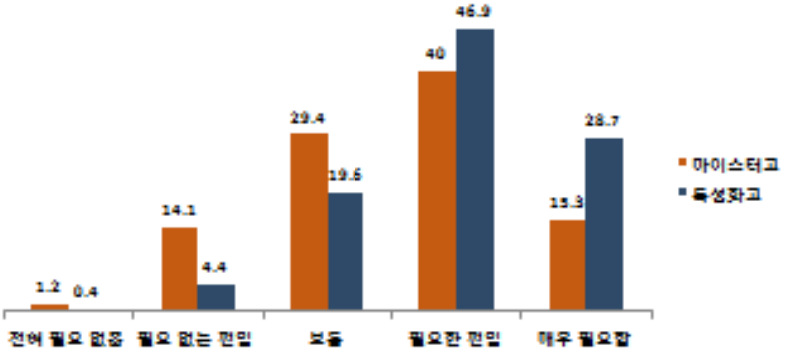
3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교육 체제

학부모의 진로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 학부모의 진로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는 특성화고가마이스터고보다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17> 학부모의 진로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단위: 명, %, 점)

구분		빈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는 편임	보통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합계	점균 (5점 만점)
전체		360	0.6	6.7	21.9	45.3	25.6	100.0	3.89
학교 유형	마이스터고	85	1.2	14.1	29.4	40.0	15.3	100.0	3.54
	특성화고	275	0.4	4.4	19.6	46.9	28.7	100.0	3.99
유의도		Pearson chi²(3) = 18.1353***							



[그림 20] 학부모의 진로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단위: %)

4 진로교육의 문제점 및 미래 지능정보사회 대비 학교 지원 사항

학교 진로교육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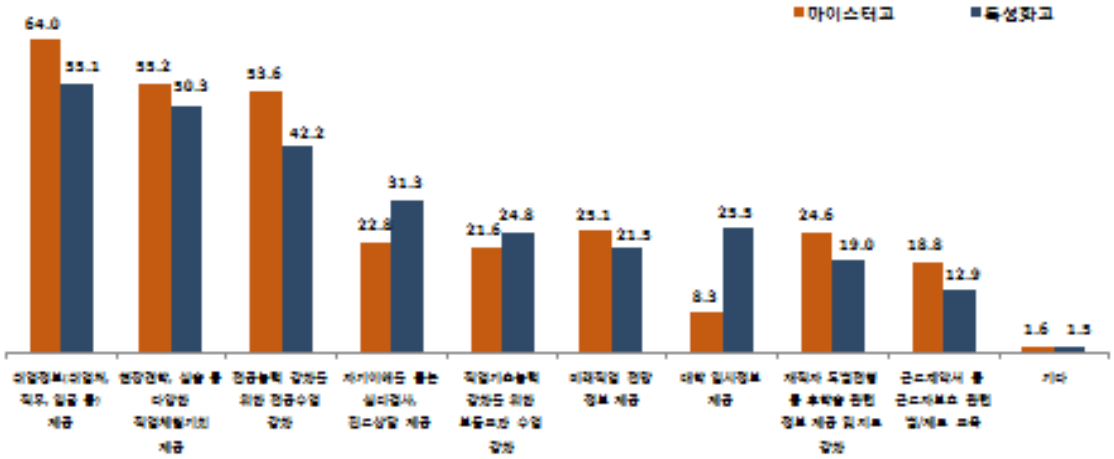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모두 '중학교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공과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진로지도 미흡'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의 진로미결정 및 진로 관심 부족', '적성 불일치 학생의 진로변경(학교, 전공) 어려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특화된 진로교육에 대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부족' 등을 제기함.

[그림 21] 학교 진로교육의 문제점 (단위: %)

4 진로교육의 문제점 및 미래 지능정보사회 대비 학교 지원 사항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학교 지원 사항

- '현장견학, 실습 등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공능력 강화를 위한 전공수업 강화',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한 보통교과 수업 강화' 등의 순으로 요구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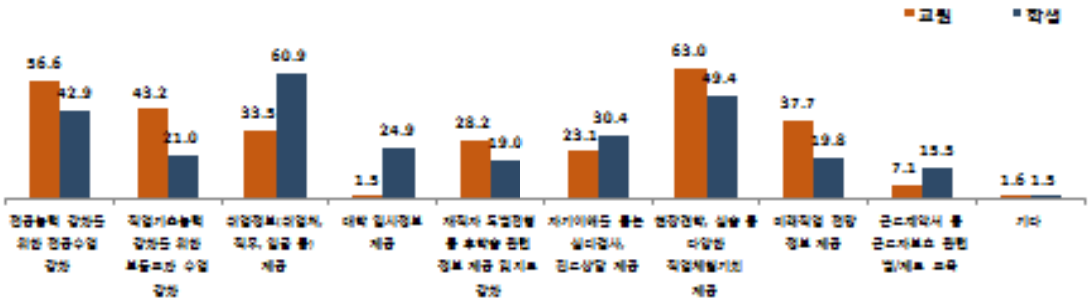


[그림 22]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학교 지원 사항_학교 유형별(단위: %)

4 진로교육의 문제점 및 미래 지능정보사회 대비 학교 지원 사항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학교 지원 사항(계속)

- 학생들은 '취업정보(취업처, 직무, 임금 등) 제공'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등 교원(학교관리자, 진로전담교사, 취업부교사)과 차이를 보임. 즉 학생들이 교사들 보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3]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학교 지원 사항_교원 및 학생 (단위: %)

Ⅲ. 시사점

시사점

-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임.
  따라서 기존 교과와 연계한 수업 또는 신규 교과(수업)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보 및 역량 제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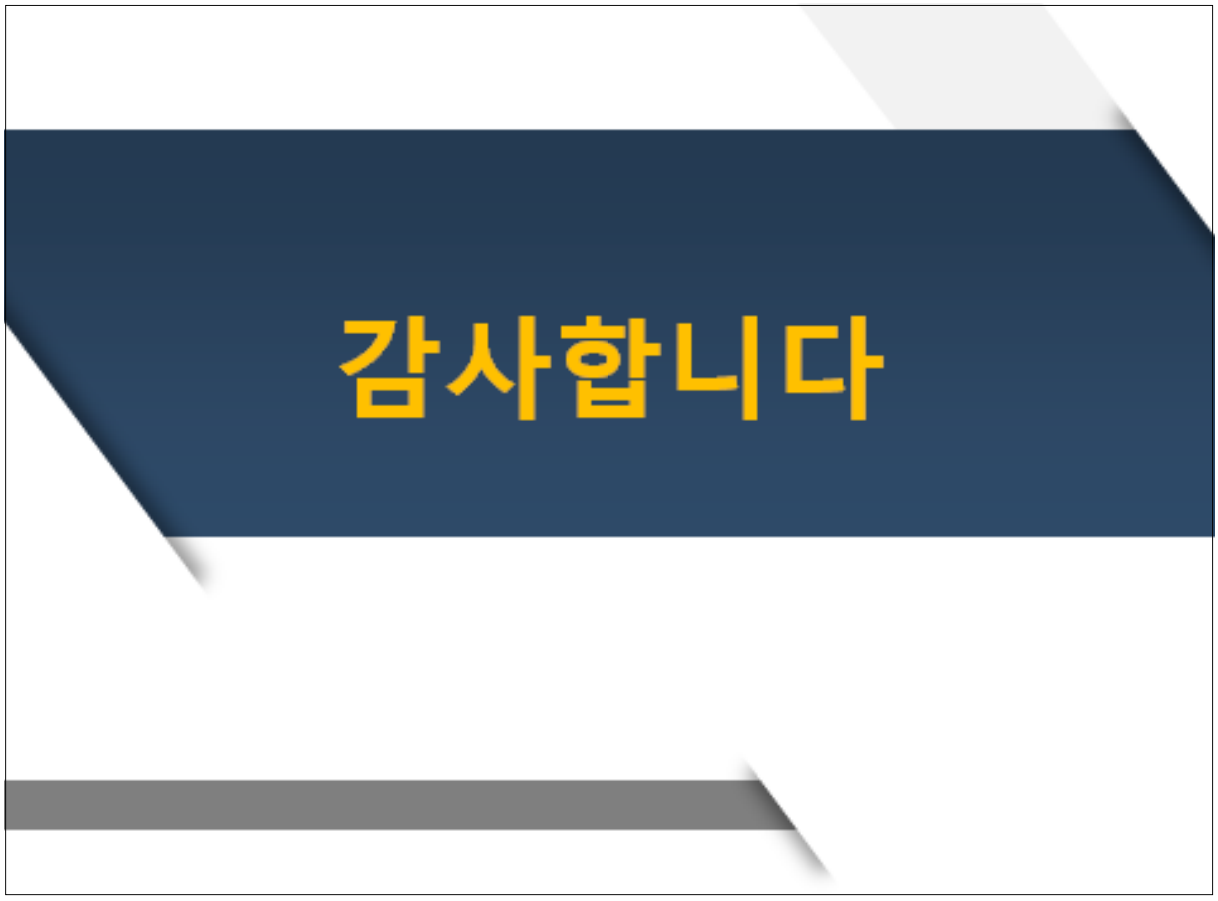
- 지능정보사회와 직업세계 변화에 따라 생애 관점의 진로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음.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입학 전 학교(특성화고/마고) 및 전공 정보 이해도가 낮으므로
  중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기관과 전공분야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지도 강화가 필요함.
  이를 통해 입학 후 학생 소질과 전공 적합도 및 직업교육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

시사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계획이 준비되도록
  직업계고에 특화된 학교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전공 관련 취업 및 후학습 지원
  - ✓ 진로미결정 및 진로 관심 부족 학생 대상 진로교육 강화
  - ✓ 적성 불일치 학생의 진로변경(학교, 전공) 허용, 다양한 진로경로 마련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특화된 진로교육에 대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보급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조직 및 담당 교사 간 협력 강화 필요

- 학교가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산업 및 직업 변화를 반영하여 현장견학, 실습 등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능력 강화를 위한 전공수업 강화 등을 제공하기를 요구됨.


감사합니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세미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나현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2018.10.24

나현미 선임연구위원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01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직업·진로교육의 방향

02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과제

01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직업·진로교육의 방향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 체제로의 전환 필요

-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따른 산업 및 직업 구조 변화 정보 제공**
-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에 따른 **다양한 진로경로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생산직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과학기술과 산업 기술을 중시하는 여건 및 문화 풍토 조성**

01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직업 · 진로교육의 방향

지능정보사회의 다양한 진로경로와 전문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노동시장 여건 개선

[그림 3] 평생직업교육훈련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정지원외(2018),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 정책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222.

01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직업 · 진로교육의 방향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산업과 교육 간 동반 혁신을 위한 지원 강화

-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기술과 산업 혁신 정책과 연계한 중등 직업교육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 지능정보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계를 이끌 전문 기능인 양성에 교육부와 다른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와** 연계하여 산업과 교육 간 동반 혁신 정책 추진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산업계의 자동화, 고도화 시스템을 가르칠 수 있는 교실 환경 구축(시설, 기자재 등),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수업내용) 개발, 교사의 지능정보 직업교육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및 체험 기회 제공**

01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직업 · 진로교육의 방향

기존의 특정 직무역량개발에 초점을 둔 직업교육체제에서 지능정보사회의 산업 및 직업 구조 변화와 연계된 직무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존 직업교육 내용 보완

- 기존 전공분야의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변화 관련 새로운 수업(과목) 신설 지원
- 전공학과와 전공의 폭을 넓히고 융·복합 전공과 같은 새로운 전공이나 학과 신설 지원
- 학점인정제도와 같은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격 또는 과정' 중심 학사제도 운영, 학생의 교과 선택권 강화와 연계한 현 정부의 고교 학점제 도입 추진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

01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직업 · 진로교육의 방향

생애진로개발 관점에서 생애단계별 실질적인 진로선택 완성도를 높이는 진로교육 체제로 전환

- 학교 진로교육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진로 자립심을 키우고 생애진로개발 역량과 학교단계별 실질적인 진로선택 완성도를 높여야 함.
- 중학교는 다양한 상급교육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급교육을 준비하는 선수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진로교육 체제를 갖추고 진로교육 및 활동을 제공해야 함.

산업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개인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훈련 체제 유연성 보완

- 특성화고 전공학과 변경 및 다양한 진로선택 경로(기회) 제공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

02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과제

02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과제

▶ 특성화고/마고 및 전공의 선택 측면(학생 선발 측면)

- 초·중학교 단계에서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진로교육 및 준비 지원 강화
  - 중학교 2학년부터 특성화고와 연계한 진로체험을 통한 전공학과 탐색 강화
- 특성화고 전공 선택은 입학 시 성적이 아닌 고교 입학 1년 후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특성화고 입학 후에도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전과(전공변경)가 가능하도록 허용

10

02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과제

▶ 특성화고/마고 적응 및 직업교육 학습동기 제고 측면

-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로지도(상담)** 제공
- 진로전담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들의 상담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 실시
- 적응을 돕기 위한 **특화된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필요
  -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존감 및 동기 향상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 **특성화고 학생 대상 '진로목표 의식 향상(생애계획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특성화고/마고 학생 대상 직장인 태도와 예절 등을 포함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1

02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과제

▶ 특성화고 내 취업지원 조직(교사)과 진로교육 조직(교사) 간의 긴밀한 체계 강화

- **취업지원 조직과 진로교육 조직 간** 정기적인 부서 협의회 개최 및 각자의 교육활동과 관련 정보 공유
- **취업지원 교사 대상** 진로교육 연수, **진로전담교사 대상** 취업교육 연수 제공
- 학교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계획 수립 시 **협업 하에 계획 수립**
- 위와 관련하여 **학교장 리더십이 중요**하므로 학교장 진로교육 연수 강화

▶ 특성화고/마고에 특화된 진로교육 및 활동 강화

- **선취업 후학습, 일학습 병행제** 등 취업지원과 연계된 진로교육 강화
- **지능정보사회 변화와 생애진로개발 역량을 연계한** 진로·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특성화고/마고의 졸업생, 재직자 및 경력자 대상으로 심화된 후학습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육성 지원 및 온·오프라인 후학습 지원 제도 마련

12

02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과제

<표 4> 기존 진로교육 체제에 대비한 새로운 진로교육체제(안)

구분	기존 체제	새로운 체제
교육제도	• 비교적 단순한 교육경로 (초-중-일반고vs직업계고-대학)	• 학습역량에 따라 다양한 교육경로: 초 - 중(예비과정 선택) - 일반고/ 직업계고(다양한 진로경로 제공; 고교학점제) - 일반대학vs기술대학(내실 있는 학습 체계 마련)
진로교육 목표	• 긍정적 진로정체감 형성 및 진로개발역량 함양 • 잠정적 진로탐색과 선택 지향	• 진로 자립심 형성 • 생애진로개발역량 함양 • 구체적 진로탐색과 선택 지향 - 상급교육기관/학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정보, 체험)를 바탕으로 진학/취업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 결정시기	• 열린 잠정적 진로선택 권고 • 중3, 고3, 대학 졸업 시	• 중학교 진로교육 강화: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육 준비과정 vs 직업교육 준비과정' 등의 진로선택과 준비 • 일반계고 학생의 직업교육 희망 선택을 현재 고3에서 고1로 조기 허용(일반고 재학생이면서 직업학교에서 학생으로 수업) • 학점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일반고 재학생이면서 특성화고 전공학과 학과목 수강) • 현재 학과변경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을 특성화고/마고에서 전공학과와 학교 변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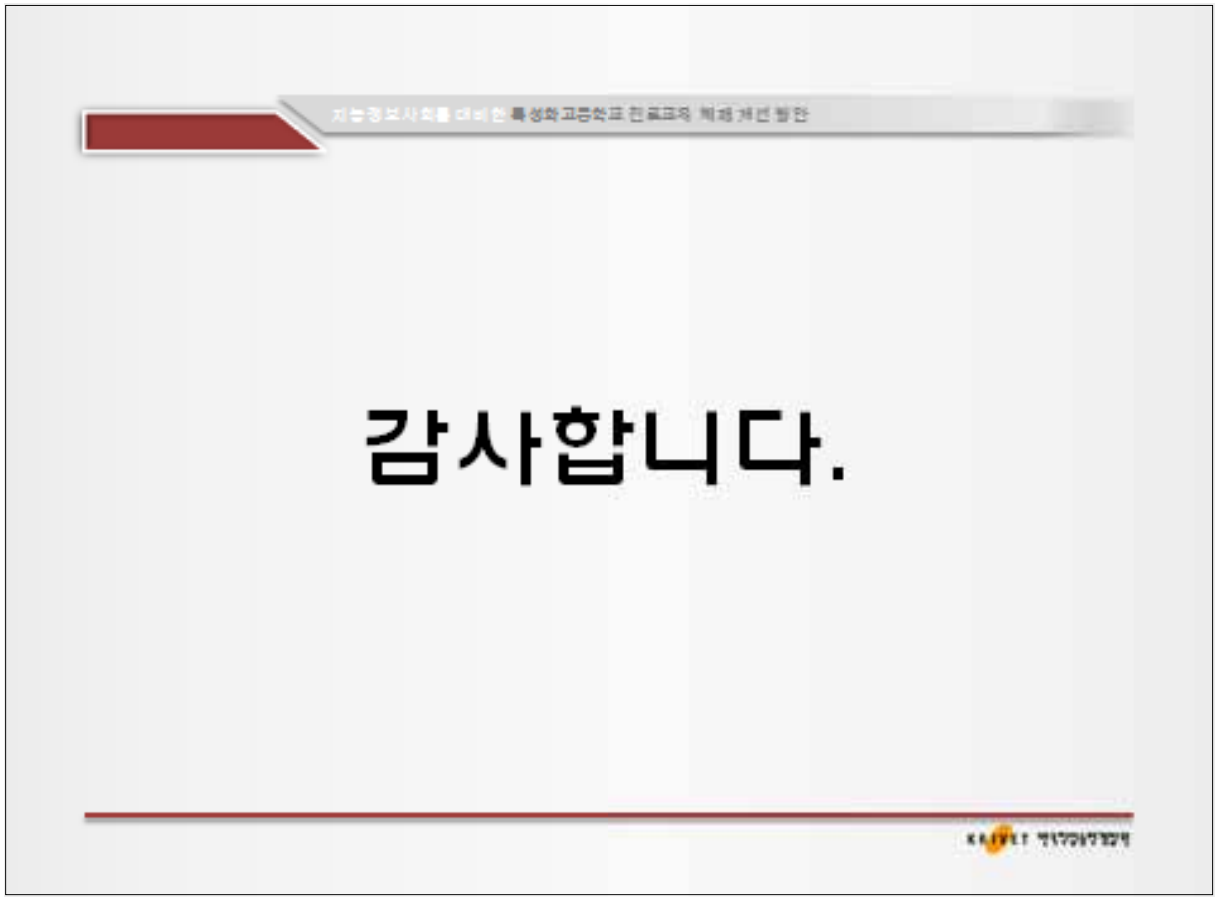
13

02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과제

구분	기존 체제	새로운 체제
진로교육 환경 여건	• 진로교육 계획, 예산, 부서 X • 진로전담교사 '1교 1명' X • 학교 내외 네트워크 미흡	• 산업계 지능정보 시스템 직업교육을 위한 학교 교실 환경 구축,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및 교사 연수 확대 •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부서 간 협력 하에 계획 수립 및 정보 공유 등 협력 체제 구축 – 진로전담교사와 취업지원부 교사 간 소통 및 상호 업무 이해 제고를 위한 정기적 협의회, 연수 기회 제공 • 일반교사의 진로상담 역량 제고를 통해 진로전담교사와 일반교사(담임 등) 간 진로교육 협업 강화 • 학교 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활동 참여 지원
진로교육 운영 내용	• 학생 소질과 현존 직업/학과 매칭 위주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 초·중·고 창체 진로활동, 중등 선택교과 「진로와 직업」 • 진로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실시	• 미래 산업 및 직업 변화에 대한 탐색과 학생 소질 개발 및 학습설계 중심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 중학교 진로교육 강화를 통해 특성화고/마고 입학생의 학교/전공 적합도 제고 • 특성화고/마고에 특화된 진로교육 교육과정 운영 • 선취업 후학습(특히 후학습) 역량 개발 지원 • 특성화고/마고 학생을 진로검사 및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 특성화고/마고 학생 대상 진로체험(업종/기업, 직업/직무) 기회 제공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


감사합니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세미나

지정토론

1. 정종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
2. 김동수 /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
3. 권영훈 /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교장
4. 이용표 / 수원공업고등학교 특성화부장
5. 은혜정 /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지정토론1>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쟁점

정종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교육 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연구는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특성화고의 위기는 크게 신입생 모집과 취업률 감소로 볼 수 있다.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은 크게 학령인구 감소와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기인 한다. 특히,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현장실습을 통한 안전사고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가 산업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의 취업이 위험한 산업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보도되어 특성화고를 지원하고자 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특성화고의 취업문제와 신입생 모집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서울시 특성화고(70교)의 신입생 모집 현황을 보면 44교에서 2,096명이 미충원되었으며, 취업률은 50%대에서 40%대로 낮아졌다.

특성화고 직업교육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의 진로교육 환경 여건과 진로 교육 운영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본다. <주제 발표3>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에서 제시한 특성화고의 새로운 진로교육 체제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쟁점 1> 일반계고 학생의 직업교육 희망 선택 시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서울산업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고 3학년 학생(2,594명, 2019학년도 모집정원 기준)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로산업정보학교와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가 일반고 2학년 학생을 조기연계과정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는 전문교과 만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으로 직업교육 희망 선택 시기를 낮출 경우 보통교과 이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직업교육과정을 1학년까지 조기 허용한다면, 특성화고의 직업교육과 양립할 수 있도록 일반고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쟁점 2> 학점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일반고 학생에게 특성화고의 전공학과 학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특성화고의 기초 실무중심 교육과 대학의 이론중심 교육을 상호 보

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특성화고에서 취득한 전공학과 학점에 대해 동일 전공학과 대학입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고교학점제가 일반고의 진로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쟁점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체험(현장실습) 기회 제공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적응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운영 뿐 만아니라 취업처를 발굴하여 학생을 취업시키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고에서 취업지원 책무는 직업교육받은 학생이 취업한 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익 보호와 노동인권보호 및 산업안전을 위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성화고에서는 진로체험(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성화고에서 전공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형 현장실습을 위해 학교에서 참여기업과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는 노무사와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점검으로 인해서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을 꺼리고 있어 진로체험(현장실습)을 통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특성화고가 중등직업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지정토론2>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김동수 (삼일공업고등학교)

그간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은 전문계고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시대에 와서 특성화고가 존폐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것은,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만을 고수하고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특성화고가 학생모집에 심한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학교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의 진로교육 체제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며 그 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째로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학과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이 생산 기능인을 육성하여 취업을 시키는 "완성형 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학생이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른 다양한 진로체제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단순 기능 반복 훈련을 통한 생산 기능인의 양성을 탈피하고, 기술·기능 인재양성 없이는 국가와 미래도 없다는 비중확대 사업의 취지에 맞춰 수요자 요구에 따라 미래직업군에 해당하는 지식정보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학과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학과를 유지 보수하는 개념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며, 직업군 자체가 바뀌면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 또한 미래 직업군에 따라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미래 직업군을 연구하는 TF팀이 교내에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과 개편의 사례로 저희 삼일공고에서는 그동안 제조업에 한정되었던 취업처를 다변화 시키고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직업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공무원 또는 공기업 및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비중확대 사업을 통하여 학교 정책 방향을 학과의 3트랙으로 재구조화시키게 되었습니다.

1. 국가기간산업 관련 학과 : 화공과,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2. 4차 산업 관련학과 : 3D융합콘텐츠과, 사물인터넷과, 환경에너지과(예정)
3.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학과 : 경찰사무행정과, 레저스포츠과

이 중 경찰사무행정학과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학과로,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신설하여 경찰 인력 및 일반직 공무원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한 주변 대학에 연계학과가 존재하여 '선취업 후 진학' 모형을 수행할 수 있어 특성화고 진로 전개모형에 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성화고의 진로교육 체제 패러다임은 '완성형 교육'에서 "완성형 교

육”과 ‘연계형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교학점제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양한 적성과 흥미 그리고 자신의 소질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1학년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인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확대를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로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고, 그 밖에도 평가제도의 보완, 대입제도의 개선, 교과 교실제 실시와 교사인력풀 양성, 교원 업무 경감, 고교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수능 절대평가로의 전환, 교사 서열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탈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도제 교육의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선 방안으로 추진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인해 취업이 불확실해지다 보니,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인력은 줄어든 반면 학교 측 업무 부담은 가중돼 취업을 돕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일선 학교에서 선도 기업 발굴에서부터 학생 취업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에서 벗어나, 지역의 거점 기업들과 연계하여 지역 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지능정보 기술과 직업교육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제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제 교육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주요 직무분야 중심으로 기초이론을 배우고 현장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이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일을 배우는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특성화고의 진로교육 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창의발명교육을 통한 융복합형 인재양성이라던가, 고졸 취업인력의 향후 사회적 발전가능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등이 필요할 것이며, 특성화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토론3>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 토론문

권영훈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최근 교육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구체적인 진로교육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제발표1>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독일의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의 국가 차원에서 산업과 연계된 지역 네트워크 거점 기관 육성, 이를 위한 직업교육 교실 환경 구축, 교사의 역량 개발 지원 등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 이후 일반계 진학과 실업계 중등학교 진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알슐레의 6학년부터 10학년 과정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도제 훈련을 도입하면서 특성화고의 일부를 마이스터고로 변경하거나, 일부를 도제학급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와 진로시간 등을 통해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독일과 달리 매우 이론적이며, 교사 위주의 진로교육인 것 같습니다. 최근 특성화고는 입학할 학생을 구하기 위하여 중학교를 방문하여 입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한 후 일반고나 특성화고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실패인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독일의 모델로 삼아 우리나라도 **중학교 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은 기업, 특성화고와 연계한 체험위주의 진로교육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발표2>의 설문 조사 결과는 지능정보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직업교육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 중학교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공과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진로지도가 미흡하다는 것,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견학, 실습 등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 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이유는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학생은 여러 가지 진로고민과 주제를 갖고 있고 진로미결정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는 현 정부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조기 취업을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변경한 이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성화고의 10월과 11월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데려와야 하고, 고3학생들을 양질의 직장에 취업을 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올해처럼 힘든 가을은 처음인 것 같습니

다. **고3학생들의 조기 취업이 막혀있기 때문에 중3학생들에게 특성화고의 장점을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설상가상으로 취업이 안 되고 있으므로 차라리 대학이나 가자는 의식이 팽배해져 대학 진학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특성화고는 입시 미달과 취업률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부에서는 선생님들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제발표3>에서는 전문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노동시장 여건 개선, 평생직업교육 체제로의 전환, 산업과 교육 간 동반 혁신을 위한 지원 강화, 직무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 내용 보완, 생애 단계를 고려한 진로교육 체제로 전환, 직업교육훈련 체제 유연성 보완 등과 같은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직업·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학교는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므로 불과 10년 전만해도 우리학교를 졸업하면 많은 학생들이 생산직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산직에 취업하려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장 생산직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고 안산은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청년실업은 많아지는데, 생산직과 기능직은 청년을 구하지 못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의 전문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노동시장의 여건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발제자의 말씀처럼 특성화고/마고 학생 선발 시 중학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진로교육이 중요하므로 **중학교 때 진로 체험을 통한 전공학과 탐색이 강화**되어야 하합니다. 특히 **특성화고 입학 후 전과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진로교육은 입시지도가 대부분입니다. **특성화고에서의 진로교육은 졸업 후 취업, 생애 단계별 직업 교육, 경력개발경로에 대한 실질적이며 명확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진로상담교사에 대한 직업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특성화고에 근무 중인 진로상담교사의 정기적인 협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업계열 고등학교는 기존의 학과를 4차 산업, 지능정보사회에 걸 맞는 학과로 변경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교육부나 직능원의 명확한 방향 제시나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므로 A지역은 AI 관련과, B지역은 콘텐츠 관련과, C지역은 무인자동차과...이렇게 구체적인 방향만이라도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각도로 우리나라의 진로·직업교육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보도록 하는 훌륭한 내용이었으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보다는 늘 이야기 되어 왔던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진 듯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성화고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은 근로 시간 감축과 고용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식정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특성화고 교육,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특성화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중학교부터 진로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 배양과 함께 생애 단계별 직업 교육, 경력개발경로에 대한 실질적이며 명확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진로교육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4>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

이용표 (수원공업고등학교 특성화부장)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 체제로 개편

- 기술변화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하는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보면 굳이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생산현장에서 자동화가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 특정 산업 분야에 구체화된 기술은 대부분은 향후 인공지능 산업시대에는 사라질 직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공지능 산업시대에서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구성원 내·외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 문제해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과, 전공 간에 융합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학과로 구분된 경직된[2]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학습하기가 어렵다.
- 교육과정을 NCS[3]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학교에서는 산업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게 되었다.
-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인 양성, 교육과정 개편
-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모든 전공에서 공통으로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 토목과 학생들도 아두이노를 배워서 실습에 적용하여 토목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
- 교실환경과 교수학습방법 및 교수 자료들은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교사 학생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의 교실에서는 이런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어 교사 학생모두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직무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존 직업교육 내용 보완

-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직무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기가 어렵다. 고교학점제 도입 역시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치하면 대학진학과 연결되기가 쉽다. 직업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이

1)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2016
2) 특성화고를 진학하는 중학생의 학과선택은 전공별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라 진학하는 학과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전공외에 주변 학과의 교과목을 선택할 수가 없고 학과 이동도 어려운 실정이다.
3)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별로 24개 대분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실무과목이 적용되어 NCS학습모듈을 교과서로 활용하면서 교과서의 수준, 기자재 미확보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NCS 실무과목은 해당 직무의 수행 능력에 집중해서 교육하게 함으로 급변할 미래사회를 대비할 다기능 문재해결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제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 전문 직업인 양성의 목표에 따라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개편되었지만 보통교과는 변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을 배운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고등학교와 동일한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같은 교과서를 배울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통교과 이수 시간은 인문계고등학교에 비하여 월등히 적다. 학생과 교사 모두 보통교과 수업시간을 힘들어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보통교과가 누적된 학습부족을 보충하고 기초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야한다.
- 독일의 경우 일반 김나지움과 직업학교에서의 보통교과는 차이가 있다.
  직업학교에서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Technisches Gymnasuim, Technische Oberschule와 Berufsfachschule의 보통교과는 차이가 있다.

○ 생애단계별 진로선택 완성도를 높이는 진로교육체제

- 초・중학교의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성화고 선택에 대한 진로교육은 중학교 2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 지역 내 중학교-특성화고 연계한 학과 인력양성유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중학교 진로담당교사들이 지역 내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 정보가 부족하다.
  학생의 적성과 특성보다는 내신 점수에 의해서 진로가 결정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최소한, 중학교에서는 지역 내 상급학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지역 내 중학교와 특성화고가 체계를 갖추고 진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부모의 SES(Socioeconimic status,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가 많고 진로지도에서 교사의 영향이 큰 상황이다.[4] 중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엽적인 정보로 진학할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과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과선택 이유를 확인해 보면 “어릴 때 자동차에 흥미가 많았다.” “자동차를 만들거나 설계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동차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자동차과에서는 자동차 수리 및 정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동차 정비사를 양성하는 것이 인력양성의 목표이기에 학생들의 기대와는 차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 특성화고 입학 후 학과변경

- 입학 후 1년후 에 학과를 선택하거나 중도에 학과를 변경하는 것은 현재의 NCS 교육과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 실습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한계, 미흡한 직업교육 이 될 우려가 있다.
- 학과변경은 동일계열 내에서만 가능함.
  특성화고 입학 1년 후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다면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에서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학

4) 한국교육고용패널 2016 학생데이터

생들이 직업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전공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전공 관련 단순 기초 지식만 학습한 졸업생을 채용하기는 어렵다. 직업 준비단계의 교육과정을 1년 정도 이수한 후 학과를 선택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럴 경우 4년이 됨으로 현실성이 없다. 특성화고에 입학 후 전공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은 동일계열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과-토목과, 기계과-자동차과, 전기과-전자과 등 동일계열의 학생들 경우는 1학년이나 2학년 초까지는 상호 전공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계열을 벗어난 학과변경은 어려움이 예상된다.(ex 건축과-전기과 학생간의 전공변경은 어려울 것이다.)

- 중학교 2학년부터 진로교육을 구체화하여 중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특성화고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학과 변경에 대한 수요도 적을 것이다.[5] 만일 학과변경을 허용한다면, 기존학년으로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과목을 이수하는 학년으로 변경해야 한다. 즉 재학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유급제가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 따라서 애초에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학과가 지역에 없을 때는 타 지역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또는 학교 내 소규모 기숙사 시설이 있다면 타 지역의 학생이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학과를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마이스터 학교에서만 전교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 학습동기 제고측면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체로 학업의욕과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관련이 많다.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와 상담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일반상담을 위한 교원연수는 그동안 많았으나 별 효과가 없다. 일반교사는 전공별로 평생경력 개발과 관련된 상담에 집중해서 상담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이원화하도록 한다.

○ 진로상담교사와 취업지원 조직은 통합

- 학생들의 평생경력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업부서와 진로상담이 통합되어야한다. 특성화고는 인문계고와는 다르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해당 직종에서 구체적인 직업을 탐색하기를 원한다. 직장과 진로가 연계되는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진로상담과 취업조직이 별개일 수가 없다. 학생의 희망진로에 따라 구체적인 직업과 직장이 안내되기 위해서는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 1학년 전교생에게 직업탐색을 위한 체험활동으로 요리, 항공기정비 등을 실시하였는데 흥미위주로 끝난 경험이 있다. 그 이후로는 해당학과의 전문가를 초정하여 진로특강을 실시하거나 기업탐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5) 독일의 직업학교에서는 학과변경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

○ 졸업생을 위한 후진학 센터

■ 졸업생, 재직자 및 경력자를 위한 후학습 교육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올 9월부터 중소기업 3년 재직자는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졸업생들이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졸업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 후에 후진학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지역 산업단체나 지역상공회의소에 “후진학 센터”를 설립하여 고졸 졸업자에 대한 후진학을 지원하도록 한다.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 가서 후진학을 상담하지 않아도 직장 인근에서 후진학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한다.

○ 군복무를 고려한 진로지원

■ 선취업 후진학 체제는 남학생의 군복무를 해결해야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특성화고 남학생의 진로 모델에서 병역문제는 매우 큰 영향을 준다[6]. 현재 국방부 특성화의 모델을 활용하여 군 복무 중에 직업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제대 후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고졸 초기경력자의 직장적응 실태분석’, 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종선,임언,오석영,정혜량

<지정토론5>

특성과고에서 꿈을 찾다

은혜정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2012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근무한지 7년째 되어가지만 여전히 특성화고에서의 진로교육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 어려움들이 오늘 토론하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 체제 개선 방안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의 문제점 들을 되짚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고 싶다.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민감성 차이에 따른 갭(격차)이다. 산업사회의 변화는 급속도로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는데 반해 학교는 여전히 예전의 교육체제나 교육과정을 고수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한 인재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답습적이라고 하겠다. 물론 학교마다 상황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육과정을 수정하는데 있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따를 수 밖에 없어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 해 1학년부터는 대부분 NCS에 기초한 과목들로 실무과목들이 추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에 대해 교사도, 학생도 아직 준비되어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특히 실무 과목을 지도해야할 교사가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가르쳐야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음에도 상급기관에서는 그냥 가르치라는 지시와 감독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사회변화에 따른 인재를 양성해야함에 동의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온전히 학교나 교사 개인의 몫으로만 돌아온다면 개별 학교는 마치 각개전투를 하듯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두 번째는 중학교에서 상급학교로의 진로선택 정말 중요성하다는 점이다. 앞선 토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일반고로의 진학과는 다르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산업인재를 양성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교육 목표이지만 중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인식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막연한 진로의 한 선택으로만 생각할 뿐 취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진학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여전히 친구를 따라 지원하거나, 성적이 낮아서, 혹은 공부하기 싫어서 일찍 돈 벌고 싶다는 마음으로 특성화고를 오게 되니 쉬운 줄만 알았던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이 생각보다 쉽지않음을 발견하고 갈등과 함께 진로변경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욕구와 회피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중학교 교사들이 상급학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알아 학부모나 학생 진로상담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면 특성화고에 입학해서 더 이상 진로정체감의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일이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담임교사의 진로선택이나 학부모의 취향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일이 더 이상 있지 않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특성화고 진로교육은 단순히 직업 선택과 취업준비 교육 뿐 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망하고 바로볼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되는 실무체제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한 다는 점이다. 보통교과와 실무교과간의 융합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협력 학습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특성화고라고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소비하는 사람이 아닌 지식기반을 이용하고 발전시키는 주체세력이 되기위해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때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서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NCS기반의 실무교육이 장려되고 진정한 장인정신, 직업인으로서의 소양교육과 매너 등 사회인으로서의 준비교육과 사고 신장을 위해 학생들의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들이 수업과정 중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등 취업을 위한 동기부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재 사회의 변동과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특성화고에는 여러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다시 점검해봐야할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를 위하여 각 교육청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직무연수가 아닌 지속적이고 격월이나 분기별로 체계적인 진로 정보 제공과 교육을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학년별 담임교사, 교과별 교사 등을 상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여전히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선호하고 있어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지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오늘도 각급 학교들은 신입생모집에 큰 고민을 안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특성화고가 과연 어떤 인재들을 키우고 양성할 것인지에 대핸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부디 특성화고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키워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Memo

Memo